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방안

최 은 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수

1. 머 리 말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전통과 업적을 이어가는 동시에 반성하고 재조명하여 현실의 발전과제를 설정, 추진해 가는 한편, 급속히 변화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전망하고 올바로 예측하여 이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2000년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농촌생활개선사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찬회를 갖게 된 것은 이런 점에서 그 당위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찬회의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진단이 필요함은 물론,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재적 제 여건을 검토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의 농촌생활의 변화 또는 문제를 예측해서 이에 부응하는 미래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발전적인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농촌생활개선사업 방안을 만족스럽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촌생활개선 사업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79년 말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1980년대의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쎄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개념을 「농촌생활에 관한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근대화를 뒷받침하여 복지 농촌건설에 기여토록 한다」고 정립한 바 있다. 여기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토록 한다는 개념은 농촌인의 생활향상이나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2000년대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개념이 될 것이다. 다만 “생활의 질”이나 “복지농촌”的 개념 속에는 객관적이고 물질적 측면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이외에도 가치, 의식구조, 태도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생활문화적 측면과 생활과학적 측면의 통합적인 견지에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촌생활을 둘러싼 제 여건의 변화와 전망

가. 농업 및 농촌사회의 변화와 전망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성공하였고, 1980년대 후반인 오늘에 와서 한국경제는 선진화를 향해 국제화와 개방화의 방향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농업과 농촌사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는 그중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의 지속

농가인구는 1967년을 절정으로 하여 년 평균 426천명씩 감소하여 2001년에는 전인구의 11.8%에 불과한 6,033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농촌인구도 1986년에 이미 30% 선에서 2001년에는 20%까지 떨어져 고도경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구의 부녀화, 노령화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농촌은 인구의 흡수지로 전환되어 인간정주의 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소농 규모의 존속

* 1988년 6월 23일 ~ 24일 농촌진흥청주최로 농촌영양개선 연수원에서 열린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사업 발전방안 연찬회’의 주제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임.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980년에 1.02ha에서 1985년에 1.10ha로 점증하였고, 2001년에는 1.7ha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호당 농업노동 부담이 증대되나 영농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므로 소농구조는 여전히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토지가격이 농지생산성을 앞질러 올라 농지구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가족노동력 중심의 농업기계화 촉진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노임의 상승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농촌노임을 상승시켜, 노동생산성보다 농촌노임이 더 빨리 높아지므로, 기계화 영농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나, 소농규모이므로 기계화의 비용이 높고, 기계화를 위한 영농규모 확대시에도 고용노동보다 가족노동 중심으로 해야 하므로 가족노동의 자질과 건강이 중요해진다.

4)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영농형태로의 발전

토지가격과 노임보다 농지와 노동생산성이 낮은데 비해 농업, 농촌에 대한 국가시책으로 자본과 기술은 보다 값싸게 공급되므로 한국농업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영농형태로 발전해 갈 것이다.

①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영농형태의 변화

또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도시화의 진행은 식품소비패턴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영농소득작목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즉 2001년에 1인당 쌀소비는 85.0kg까지 감소될 전망이며 육류, 고등채소류 등 고급농산물의 소비가 증대됨에 따라 축산, 시설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의 소득작목을 중심으로한 영농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② 상업농업으로의 전환

식량자급위주의 농업에서 소득위주의 상업농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여러작목을 결합한 복합영농으로 토지와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민의 경영능력 향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따라 전업농과 기업농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5) 농촌의 도시화, 공업화

어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도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수도 서울에 집중되던 인력과 자본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 대도시의 경제활동에서 비중률이 더 많아짐에 따라 농촌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이른바 농촌의 도시화 또는 U-turn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수록 농촌의 도시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은 농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국가장기발전의 목표는 고도화된 선진사회 실현에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발전의 기본목표는, ①자금력 제고를 통한 식량공급 안정기반의 확립, ②상업적 전업농 중심의 고농률 생활체계구축, ③도농간의 균형적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사회건설 등에 두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종합대책”도 지역경제를 단위로, 두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농어민후계자들을 주축으로 한다는 것과 농촌의 공업화로 농촌지역에 농외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6) 농외소득의 증대와 겸업농의 증가

농촌의 공업화와 소농규모에 따른 농가소득의 한계성 때문에 전업이나 기업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농외소득을 더 중시하여 아버지와 아들, 딸은 회사나 공장에 나가 일하고, 주부와 노인이 소규모 전답을 자경하는 겸업농 가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농외소득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1984년의 35.0%에서 2001년에는 49.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7) 농촌사회의 구조변화

① 농민의 중산층화

2000년대에 농촌의 영세농은 9.5%로 감소하고 중·소농이 75%로 증가하여, 대농은 7.0%로 증가할 것이라고 문병추(1985)가 예측한 바와 같이 농민의 중산층화가 이루어질

질 것이다.

② 농촌가족의 핵 가족화

또 농촌가족은 핵 가족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면서 4.0인 이내의 소가족화가 진행될 것이다.

③ 농촌의 혼주화

또 농촌의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타 산업에 종사하는 비농가와 완전히 타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는 농가도 계속 증가하여 혼주화(混住化)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④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자본의 투자로 교육, 문화, 보건시설 등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점증해온 농촌의 자녀교육열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앞으로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현재 2/3정도가 국졸 이하인 농촌여성의 교육수준은 2/3정도가 중졸이상인 남자의 교육수준 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나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낮은 교육수준은 지속될 것이다.

나. 고도의 기술사회와 가정생활의 질적 변화

오늘날 우리 농촌의 생활은 이미 생존만이 아닌 “생활의 질”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강조할 때가 되었다. 고도로 발달되어가는 기술이 미래 사회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최근 관련 학계에서 점증하고 있다. 여기서는 1986년 대 한가정학회에서 “미래가정의 생활문화”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도기술사회와 가정생활의 질적변화”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70년초만 해도 우리 농촌에 전기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으나 현재는 완전히 전화되었고, 이제 점차 전자화가 시작되어 첨단기술중 가장 먼저 우리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화는 냉장고, 세탁기 등의 보급으로 가사의 합리화에 기여하였으나 전자의 보급은 가사는 물론, 가계와 가정경영을 비롯한 교육, 문화 생활전반에 폭넓게 큰 영향

을 주게 될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가정생활의 정보화, 가정용품의 자동화 및 지능화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가정의 의·식·주 생활과 교육, 문화생활 등 생활의 전분야에서 사회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영향을 더 빨리 쉽게 받게 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생활구조의 다원화가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촉진은 ① 가정생활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② 생활욕구와 소비욕구가 고도화, 다양화 되어가며, ③ 생활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의 가정측 요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며, 이렇게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는 ① 가정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고, ② 가정 안에 전통적 권위가 흐트러지기 쉬우며, ③ 가정의 자립성 및 가정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며, ④ 생활의 관리화가 진전되고, ⑤ 가정 사이의 정보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같이 가정생활의 미래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자동화와 노동분담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고령화사회 등에 의해 자유시간이 증대되는 동시에 물적욕구충족에 따라 물적소비가치 중심으로부터 시간적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화의 진전은 교통발달과 함께 농촌의 도시화와 혼주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고 문화, 복지 등 생활향상에 대한 욕구를 크게 증대시키면서 농촌의 질적 생활에도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지난 20여년간 진행되어온 산업화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부녀화, 고령화 현상과 농촌노임의 상승으로 인한 가족노동 중심의 영농은 필연적으로 농촌여성의 농업생산 노동 참여율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여성은 앞에서 논한 바와같은 농촌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역할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관하여 여러 관련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요약하

고 미래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촌여성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과중한 노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부농업의 방향으로 진전되면서 지속될 전망이다.

2) 농업기계화는 주로 논작물에 활용되고 농촌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밭작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농업기계화가 농촌여성의 노동경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농촌여성은 손이 많이 가는 가사와 밭농사를 많이 하므로 여전히 육체노동이 심하며, 앞으로 시설원예, 과수 등의 소득작목이 들어남에 따라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여기에 논농사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농촌여성들의 생산활동참여, 의사결정참여의 증진으로 가정내에서 여성지위가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역할의 확대에 비하여 또 남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권이나 중요한 경제관리권은 미약하며, 특히 가사활동영역에서 보다 농업생산활동 영역에서 그 차이는 더욱크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여성의 영농참여 확대와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의사결정권은 전생활영역에서 보다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농촌여성의 사회적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증되고 있다. 가족내에서의 지위향상과 특히 부녀새마을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 농촌여성의 잠재력을 보여 주었고, 능력개발의 필요와 여지를 나타내면서 사회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5) 농촌의 미혼여성들은 동거 또는 비동거의 상태에서 2,3차산업에 종사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농외소득의 형태, 또는 본가에 송금하는 형태로 농가경제나 농기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의 도시화, 공업화와 함께 농촌여성의 재촌통근형의 농외취업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3.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 사업방향

가.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현황

농촌진흥청에서는 1987년에 현재 까지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배경과 내용을 개관 정리하고, 농촌여성의 역할변화에 따른 금후의 생활개선지도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의 방향은 1960년대 까지는 빈곤에서의 탈피를 목표로 생활의 합리화와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1970년대에는 고도경제성장하에서의 대응을 목표로 농민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개선과 보다 살기 좋은 농가조성을 역점으로 두었으며, 1980년대에는 농촌의 다양화에의 재검토를 목표로 생산과 생활의 조화, 농가생활의 질향상, 농촌여성 역할 다양화에 대응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80년대에 설정된 금후의 생활개선 사업의 지도과제를 크게 생활기술, 생활경영, 마을공동사업 부문으로 나누고, 생활기술지도 부문에서는 의·식·주 생활과 노동위생에 대한 내용을, 생활경영부문에서는 가정관리, 기족관계, 농업경영의 내용을, 그리고 마을공동사업부문에서는 생활환경개선 공동사업과 공동생활과제의 내용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개선사업의 지도방향은 크게 첫째, 농업과 생활과의 조화로 즐거운 농가생활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둘째, 생각하는 농민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생활과의 조화를 위하여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적정화, 농업유형에 따른 작업환경의 개선 및 소득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라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생각하는 농민육성을 위하여는 기족가용자원의 활용, 화목한 가정 만들기 및 지역사회조직, 봉사활동 참여라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농촌생활개선사업 과제와 지도방향은 '70년대 까지의 너무나 기술적이었고 단편적 또는 고립적이었으며, 생존을 위한 필요 충족적이었던 경향을 탈피한 것으로 보이며, 앞 장에서 논한 농촌생활을 둘러싼 제 여건의 변화 내용을 상당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발전 계획은 현재를 중심으로 한, 1980년대의 발전과제로서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보다 원대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나.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의 발전적 방향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한 부분이므로 생활개선사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농촌지도사업의 일반적인 기본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농촌사회학에서 규정하는 농촌지도사업의 5가지 기본성격은 ① 실천지향적인 비정규격 농촌교육사업, ② 각급의 국가적 및 민간적 기구의 협동적 사업, ③ 농촌인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④ 전시방법을 기축으로 한 교육적 농촌변화 촉진사업, ⑤ 농촌인의 인간개발적 지위향상 목적과 지역적 및 국가적 개발목적이 균형적으로 조화된 기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농촌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적인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 접근방법으로는 ① 고객 (지도대상)의 요청 (지각적 필요)에 입각한 (on-request-basis) 농촌지도사업이 되어야 한다. ② 상업 농 또는 기업농의 기본노선에서 시장지향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공업화적 농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농가를 전제하고 전파이론 (모형)과 유도혁신이론 (모형)에 입각한 지도사업으로 지향해야 한다. ③ 농업경영자는 수동적인 피지도자가 아닌 자유 행위자로서 제반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자율적인 농업경영 의사결정을 능동적으로 내리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④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한 하위 구성인자로서 추진한다는 것 ⑤ 총제적인 복지국가 발전의 틀 안에서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농촌지도 사업은 인간주의적, 민주적 경영형태로 농촌인의 삶의 질을 구현하고 제고시킨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본성격과 접근방법을 토대로 생각한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적 과제를 중요한 것만 요약해 보면,

1) 농업경제 과제의 강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 분야의 지도과제로는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 및 토지를 비롯한 자원의 이

용, 관리 등에 관한 지도과제가 중요시 된다.

2) 생활개선 과제의 질적 확대로서, 농촌생활개선 과제는 의·식·주 생활의 생존적인 기본적 욕구를 문제로 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사람다운 생활, 문화생활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물질적인 것을 동반하나 비물질적인 가정경영이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 가족원의 지위와 역할을 민주적으로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일과 가족생활의 질을 저하 또는 붕괴시키는 내·외재적 현상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3) 농촌 기계화 과제의 획기적인 강화인데 이는 농업에서 뿐 아니라 가정생활 및 농촌지역사회와 기계화와 자동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기계의 조작, 보수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하겠으나 기계로 인한 상해 예방 지도에도 주의를 요하며 국민생활의 과학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시 되는 과제라 하겠다.

4) 공공문제 과제로서, 농촌사회개발계획 안에서 농촌사회 발전에 대응하는 사회공공문제 및 활동에 대한 지도과제가 중요하다.

이처럼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발전적 농촌지도사업 과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다른 지도사업과제도 생활개선사업과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2000년대를 향한 생활개선사업의 발전적 방향은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적 과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000년대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방향은 :

첫째 가정생활의 포괄적인 범주로서 가정경영지도 과제 (Home Management Extension Program) 또는 생활의 질 향상 지도 과제 (Quality of Life Extension Program)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과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즉, ① 건전한 농촌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인식, 개별적 가족구성원의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촉진 ② 자녀(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녀양육 및 교육 능력의 함양 ③ 가족 및 개별가족원의 목적과 필요충족을 위해 제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④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한 학습훈련 ⑤ 지역사회 복지와 개인 또는 가족 복지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지역 사회의 제 조직과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여성의 농업생산활동 참여 증대에 부응하여, 여성 영농후계자의 육성 및 농업경영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일 등의 긍정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여성영농활동의 확대에 따라 가정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파악과 대책 마련 지도, 예컨데, ① 농촌여성의 건강문제 ② 작업환경 문제 ③ 노동, 시간 관리문제 ④ 자녀양육 및 노약자 부양 문제 등에 대한 연구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정보화, 자동화시대 및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일

넷째, 사회의 변화와 가족, 가족원의 지위, 역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농촌인 또는 가족의 욕구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함께 반영하여, 각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가족의 복지와 함께 농촌지역사회와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농촌생활개선 사업을 전개하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방향에서 미래의 발전적인 농촌생

활개선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① 지도체제의 개편, ② 지도인력의 양적, 질적 보강 ③ 지도방법의 개발 ④ 지도사업 전반을 위한 연구, 교육훈련 평가 체제의 확립 ⑤ 교재, 교구의 개발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4. 맷 는 말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농촌인, 농촌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복지와 농촌복지의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한 지도사업으로서, 미래의 농촌생활개선 사업 방향은 농촌생활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 농촌 및 주변환경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망을 전제로, 농촌생활의 변화요구와 추세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방향과, 예견되는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생활개선지도 방안이 설정되어야 할것이다.

2000년대의 농업유형과 농촌사회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다원화될 것이며 고도의 기술사회에서의 정보화와 교통, 통신망의 발달은 농촌의 도시화와 혼주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의 생활양식도 한편 평준화되는 반면 다양화 될 것이며, 농촌인 또는 가족의 사회, 교육, 문화적 욕구 또한 다양하게, 크게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의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이렇게 다양해지는 개인적, 가족적 및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며, 변화, 발전하는 개인-가족-사회 및 농촌-도시 간의 상호연관 속에서 조화를 이룬 가운데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